



수산계 고교 장학생 25명 선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9월 1일 2004년도 어촌어항지역 수산계 고등학교 장학생 25명을 선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해당학교로 전달했다.

해양쓰레기 수매 활발

한국어항협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전남 여수, 목포, 부산 사하, 기장, 충남 보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계획 수거량의 9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日, 제56회 전국어항어장대회 열려

배평암 회장 귀빈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

○ | 본 전국어항어장협회는 지난 9월 14일 일본 시즈오카시 시즈오카그란십에서 제56회 전국어항어장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측 귀빈자격으로 참석한 배평암 한국어항협회 회장은 이날 일본의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장, 어항어장 정비촉진 의원연맹 회장을 비롯 정부각료, 대일본수산회장 그리고 각 현 어항관계자 약 2,500여명이 참석한 대회장에서 어촌 어항 어장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양국 어촌 어항 수산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일본 어촌 어항어장 관계자들은 어항 어장정비장기계획 및 사회 자본정비 중점계획(해안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관련 시책의 적극적인 전개가 도모될 수 있도록 전국 어항 어장 어촌 관계자들의 총의를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풍요로운 바다의 숲 만들기과 만들어 기르는 어업, 자원 회복을 지원하는 기반 만들기 추진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의 생산 공급 기반의 정비 △도시와

어촌의 공생·대류 촉진과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 추진 △어항 어촌의 지진에 의한 해일 방재 대책의 조속한 강화 등을 세부 실천 과제로 선정했다.

또 대회 소호문을 통해 “△어업 어촌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구의 해양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어업 어촌은 국민에게 세계 제일의 맛있고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것이다 △어업 어촌은 전통 문화를 계승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겠다 △대지진 해일의 발생이 시시각각 직면하고 있다. 조속한 방재대책과 훈련강화에 노력하자” 등의 내용을 국민에게 선포했다.

배평암 회장은 전국어항 어장대회에 앞서 13일 저녁 수산청장관, 대일본수산

회장, 어촌 어항 수산 관계자 12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 대회 전야 환영리셉션에서 야노 테르시게(矢野照重) 전 일본전국어항협회 회장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회 참관 후에는 시즈오카현 관내 후쿠대 어항을 시찰했다.

